

##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혁은 7 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 세 때 러시아로 이주,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 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 위에 입상하면서부터였다. 형인 임동민은 1 위에, 임동혁은 2 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 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로-티보 콩쿠르에서 1 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 개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 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계에 핫이슈를 몰고 왔지만, 2005 년 제 15 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 위를 수상하며 그에 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또한 2007 년 6 월, 제 13 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 위 없는 공동 4 위를 수상하며 세계 3 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으며, EMI 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EMI 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며 EMI 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4 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 집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 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 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 년에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 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2019 년에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 번과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가 수록된 그의 5 집 음반이 발매되어 호평을 받았고 2022 년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 2 곡을 녹음한 6 집이 발매되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베르비에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아르헤리치 함부르크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 지휘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벡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22/23 시즌에는 데뷔 20주년 기념 슈베르트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쇼팽 LP 음반 발매를 기념해 전국투어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거장 아르헤리치와 공연을 국내외에서 준비하고 있다.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황금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 후,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아리 바르디 사사,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엠마누엘 엑스를 사사하였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 Pianist **Dong Hyek Lim**

Acclaimed by audiences, critics and fellow musicians, Dong Hyek Lim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Since winning the second prize at the Chopin Competition for Young Pianists in Moscow as the youngest participant of that year, he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Lim's performances at the Small and Great Halls of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Salle Pleyel and Salle Cortot in Paris, the Lazienki Palace in Warsaw, the Konzerthaus in Berlin and with Martha Argerich at the Philharmonic Hall in Beppu, Japan, have won great acclaim. Also, Lim has appeared in many renowned festivals including Verbier in Switzerland, Klavier-Festival Ruhr in Germany, the 57th International Chopin Festival in Poland, La Roque d'Anthéron, Montpellier Radio France and Piano aux Jacobins Festivals in France. He has performed with world's major orchestra such as NHK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New Japan Philharmonic under conductors Charles Dutoit, Myung-Whun Chung, Yuri Temirkanov.

In 2001, Lim became the youngest pianist ever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EMI Classics and received the Diapason d'Or award in France for his debut album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 series.

His second recording on EMI was awarded the Choc Prize by Le Monde de la Musique. Also, Lim achieved great success in his third album, playing Goldberg Variations by J.S Bach. His fourth album 'Chopin 24 preludes', with Warner, has been acclaimed by Gramophone and BBC Magazine.

Lim has won top prizes at various competitions. In 2000, Lim took the 1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Busoni Piano Competition in Italy, which later became known as 'Busoni Shock' (the entire juries were replaced for the next year's competition). He went on to win the second prize at the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Japan later that year. In December 2001, not only did he become the youngest winner of the Premier Grand Prix in the history of the Marguerite Long-Jacques Thibaud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Paris, but also he won several other special awards. In October 2005, Lim participated in the 15th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Warsaw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ook the third prize; tied with his elder brother Dong-Min Lim (no second prize was awarded). In June 2007,

Lim participated in the 13th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shared the fourth prize with Sergei Sobolev (no first prize was awarded).

In March 2022, he released his sixth recording on Warner of Schubert Sonatas: No 20 in A Major D.959 and No 21 in B at Major D.960, and toured a recital program of Schubert Sonatas. Highlights of Dong Hyek

Lim's 2022/23 season include a recital tours and a concert with Martha Argerich.

Born in Seoul Korea in 1984, he began his musical training at the age of seven and moved to Russia at age ten to become a pupil at the Moscow Central Music School. He graduated in 1998 and continued studies at the Moscow State Tchaikovsky Conservatory with Professor Lev Naumov. Lim also studied in Germany with Arie Vardi at the Hochschule für Musik in Hannover and the US with Emanuel Ax at the Juilliard School. He is now based in Berlin